

사슴의 발정과 교배

1. 발정증세

어린사슴은 발정 증세가 뚜렷하나 늙은 사슴은 뚜렷하지 않다. 먼저 식욕이 감퇴하며 거동이 불안해진다. 자주 우는 소리를 내며 다른 암컷에 승가를 하고 자주 우는 소리를 낸다. 외음부가 붓고 질점액을 분비한다.

2. 발정주기와 발정지속시간

발정의 주기는 품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꽃사슴과 엘크의 경우는 19~23일 사이로 평균 21일의 주기이나 레드디어의 경우는 18.8 ± 1.7 일로 조금 빠른 편이다. 발정의 지속시간은 평균 40시간 정도이며, 첫발정 시 임신이 되지 않으면 다음번 주기에 발정이 또 오며 일반적으로 다음번 발정주기에 발정이 오지 않으면 임신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번식계절 동안에 발정이 오지 않으면 다음의 번식계절인 1년후에 발정이 오게 된다.

3. 교 배

사슴의 교배는 암사슴과 수사슴을 합사시키면 쉽게 이루어진다. 교배의 방법에는 자연교배와 인공교배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인공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자연교배를 이용하고 있다. 자연교배시에는 수사슴과 암사슴의 비율은 1:10~15두가 적당하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수사슴 1두에 암사슴을 50두까지 넣어주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암컷의 비율은 번식율의 저하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종족의 녹용생산량 또한 교미로 인한 과다한 체력소모로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암사슴과 수사슴의 합사시기는 일반적으로 엘크가 9월 10일, 레드디어 9월 20일, 꽃사슴이 10월 10일경이 되며, 늦새끼의 분만방지를 위해서 뉴질랜드의 경우는 42일후 수컷을 분리하며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4. 임신과 분만

발정이 와서 암컷이 수컷에 접근하기도 하며 수컷이 승가자세를 취해도 도망가지 않으면 교미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의 발정주기인 18~23일 사이에 발정이 오지 않으면 일단 수정이 되어 임신이 된 것으로 간주해도 되며 교미날짜를 개체별로 기록해 두면 분만 시기에 대비할 수 있어 유리하다. 사슴의 임신 기간은 품종별로 평균 꽃사슴이 224.7 ± 2.4 일, 레드디어가 230.7 ± 2.3 일이며 엘크는 251.5 ± 4.4 일로 품종간에 차이가 있다.

(1)태아의 발육

일반적으로 수정된 수정란은 일정기간이 되면 자궁에 착상이 되고 태아의 발육이 시작되는데 임신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태아의 발육 속도가 느리며 임신말기인 분만 1~2개월 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기 시작하며 외부적으로도 사슴의 복부팽대로 임신여부가 관찰

될 수 있으며, 분만일이 가까워질수록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 행동이 둔해질뿐 아니라 태동도 자주 볼 수 있으며 유방이 부풀어 올라 움을 볼 수 있다.

(2) 분만

분만일이 가까워지면 아복부가 심하게 팽대 되고 사료의 섭취량이 줄어든다. 일반적인 분만의 증세는 다음과 같다.

① 분만이 임박해지면 미근부의 함몰이 일어난다.

② 분만이 가까워지면 불안해 하고 사슴의 무리에서 이탈하여 철망주위를 배회한다.

③ 외음부가 붓고 점액이 흐른다.

④ 식욕이 떨어지고 소변을 자주 본다.

⑤ 현저히 부풀어진 배가 아래로 처진다.

⑥ 유방이 부풀어 오르고 유두가 팽창한다.

⑦ 분만당일에는 누웠다 일어섰다 하면서 작은 울음소리를 내거나 머리를 돌려 복부를 불안한 듯이 바라본다.

대부분의 사슴은 자연순산을 하므로 파수가 된 후 2시간까지는 새끼나 어미에게 아무런 무리가 없으므로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좋으며 만약 난산이거나 역산의 경우는 분만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분만 후 어미는 새끼를 핥기 시작하여 털을 말리고 초유를 먹일때까지 새끼를 보호하며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그러나 간혹 사람의 손이 간 새끼에게 어미가 젖을 먹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인공 포유를 하여야 한다. 후산은 분만후 1~5시간 후에 나온다. 분만후에는 사육자는 제대염의 예방을 위해 배꼽의 소독은 반드시 실시한다.

5. 발정기 동안의 일반관리

수컷은 번식계절이 되면 자발적으로 사료의 섭취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성록의 경우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 또한 녹용이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 온순해지기

시작한 수컷은 번식계절이 되면 갑자기 사나워지므로 특별히 조심을 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번식계절 동안은 사슴장내 출입을 삼가하며 사료의 급여도 사슴장 밖에서 줄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해주는 것이 좋다. 암컷의 경우는 가능한한 발정이 시작되기 2주일 전에는 새끼를 격리시켜 번식율을 높이도록 하며 어미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포유기 동안과 발정기 전까지는 사료의 양과 질을 높여 준다.

6. 기타 일반관리

(1) 종록 이용시 유의점

① 종록의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은 건강 상태이며 다음으로 외모와 녹용생산량, 나이, 기타 수사슴의 난폭성 등도 고려하여 종록을 선발한다.

② 종록의 나이는 만3세 이상의 것이 좋으며 녹용의 생산량이 많은 것은 물론 상대쪽이 굵은 것을 이용한다.

③ 품종간의 교잡에 의한 잡종번식에서 태어난 수컷을 종록으로 사용하면 열성의 인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삼가한다.

④ 수컷 한마리당 암사슴의 비율은 15두 이하가 바람직하며 암사슴의 수가 많으면 번식율이 낮아질 수 있다.

⑤ 근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암수 모두를 한 농장에서 구입하지 말고 자기농장의 종록도 근처 번식이 되지않게 2~3년을 주기로 종록을 바꾸어 준다.

⑥ 신규사슴 농장에서 처음 번식에 들어가는 사슴의 경우는 종록의 나이가 암컷보다 1~2살 많은 사슴을 이용한다.*

● 캠페인

**사슴방매 자제하여
양록안정 이룩하자**